

APMAP 2014 jeju BETWEEN WAVES

amorepacific museum of art project 2

APMAP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현대미술기획전

APMAP의 두 번째 전시 BETWEEN WAVES는 '사이'를 뜻하는 'between'과 '파도, 물결'을 의미하는 'waves'를 조합한 주제어이다. 맑고 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제주도, 넓게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서광다원의 초록 물결,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관광객 인파(人波)가 만드는 다층적 이미지를 배경으로 자연, 예술, 사람이 교차하는 지점에 BETWEEN WAVES가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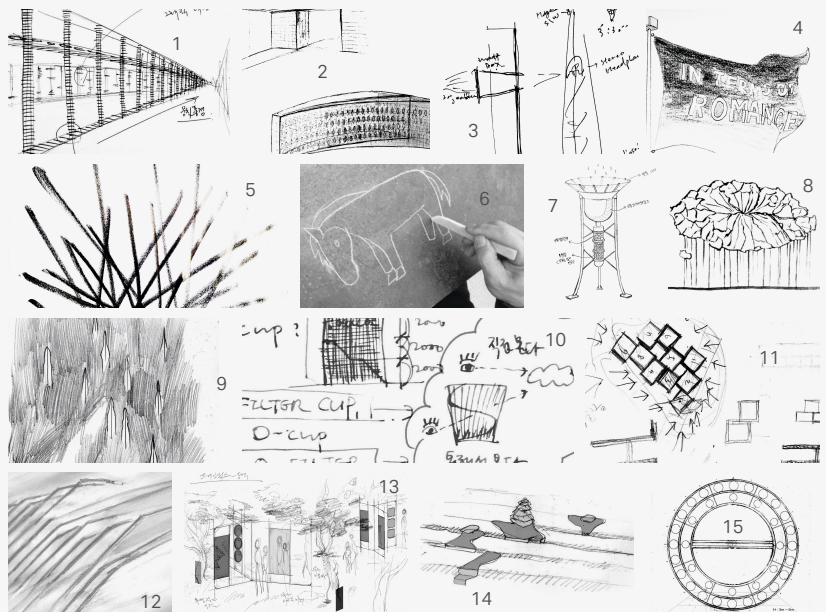
전시개요

BETWEEN WAVES는 제주도 서남쪽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서광다원/오설록에서 개최된다. 농사가 행해지는 장소와 녹차밭 성장이 가장 활발한 여름이 전시의 시공간적 배경이다. 돌밭을 훔밭으로 일구는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황무지에서 녹차숲으로 변모한 서광다원은 BETWEEN WAVES를 계기로 자연-사람-예술이 어우러져 소통하는 '예술적 가능성의 숲'으로 장소의 개념을 확장시킨다.

전시공간

전시 참여하는 젊은 작가 15팀은 건축, 조각, 설치, 디자인,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서광다원의 자연과 생태를 고려하여 구상된 장소특정적(site-specific) 작품을 선보인다. 서광다원의 산책로를 따라 12점이 설치되고 오설록 티뮤지엄, 오설록 티스톤,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의 건물 안팎에 3점이 설치된다. 전시기간 동안 방문객은 서광다원 일대에서 녹차나무 고랑들이 만들어내는 초록 물결, 흙, 돌, 야생화 등을 만나며 제주의 자연을 온전히 느끼며 자연요소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 ① 서동주 (Season) 2014, PVC 시트, 펠름, 라인테이프, 기번크기
- ② 부지현 (Net-Being) 2014 / 페 (襪) 집어등, LED, 거울, 소금, 기번크기
- ③ 정민승+정재일 (A night 西隣) 2014, 혼합재료, 기번크기
- ④ 이원우 (남편에 관하여) 2014, 깃대, 깃발 / 1800cm, 400x800cm
- ⑤ 오승열 (오고가고) 2014, 스테인리스스틸, 에폭시, 290x350x300cm
- ⑥ 이근세 (무위지행마 (無爲志向馬)) 2014, FRP, 스테인리스스틸, 92x150x34cm (2점), 106x148x30cm (2점), 85x140x30cm
- ⑦ 백정기 (단비제조기) 2014, 스테인리스스틸, 아크릴, 돌, 수, 옥주, 380x250x250cm
- ⑧ 김태균 (Sign 6: 각성의 시간) 2014, 스테인리스스틸, 140x450x240cm
- ⑨ 김병호 (15개의 종장) 2014, 황동에 투명 우레탄과 불소코팅, 200x25x25cm (15개)
- ⑩ 김찬중 (AIR-CUP) 2014, 철판, 철판피로 우레탄도장, 596(높이)x540(상부지름), 434(하부지름)cm
- ⑪ 건축사무소 एस오에이 (25계단) 2014, 철판, 피아노, 슈퍼마리 스테인리스스틸, 제주화산쇄석, 에폭시 수지, 150x330x180cm (25개)
- ⑫ 이은선 (음의 언덕) 2014, 고무밴드, 스테인리스스틸 구조물, 기번크기
- ⑬ 노재운 (프레임워크 - 동백) 2014, 알루미늄, 아크릴, 기번크기
- ⑭ 정소영 (정감다리) 2014, 철판, 철판도장, 130x150x120cm (9개)
- ⑮ 김인배 (시계) 2014, 스테인리스스틸, 플라스틱, 380x380x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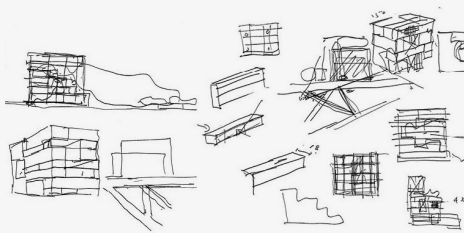
APMAP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현대미술프로젝트

APMAP(amorepacific museum of art project)은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화이트큐브를 벗어나 야외 현장에서 전시를 선보이며 일상의 공간에 예술을 개입시킨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예술의 장(場)으로 삼아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이 지향하는 미(美)의 가치, 작가, 관람객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광장을 만들어 나간다. 전국을 순회하는 실험적 전시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APMAP은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여 현대미술의 미래를 'mapping'하고자 한다.

서광다원

BETWEEN WAVES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위치한 서광다원에서 개최된다. 서광다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이 1983년부터 척박하고 잡목이 우거진 암반지대를 녹차나무 재배단지로 개간한 것이다. 이곳은 현재 24만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차(茶) 생산지로 연평균 기온 15℃, 연강수량 1,800mm에 일조량이 적어 차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돌밭을 흙밭으로 일구는 수십년간의 노력 끝에 황무지는 녹색의 땅으로 재탄생하였으며 100만 그루의 녹차나무는 삼나무 방풍림, 주변의 아열대식물과 한 데 어울려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광다원은 2014년, BETWEEN WAVES를 계기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사람, 예술과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풍경으로 거듭날 것이다.

2017 아모레퍼시픽 신축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 amorepacific museum of art)은 2017년 서울 신용산에 새로운 미술관의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고미술품 전시는 물론,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새로운 형태의 전시, 한국과 외국의 현대미술품 전시를 펼쳐 보일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다채로운 미술관 교육을 실현할 중소형 시설과 대형 강당이 설치되며, 미술전문 아카이브를 통해 연구자에게 기여할 공간도 갖추게 된다. 미술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의 작품이다. 그는 지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명확한 디자인, 자연과의 조화, 첨단기술과 재료로 다양한 건축물, 미술관을 설계하였다. 예술 작품으로 완성된 건축물인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한국미술과 세계의 작품이 공존하는 새로운 전시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정보

전시기간 : 2014년 7월 5일 ~ 2014년 8월 31일
 전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신화역사로 425 (1235-3번지)
 관람시간 : 월요일 ~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입장마감 오후 6시) 전시 중 무휴
 입장무료!
 작품설치 장소 및 운영시간 :
 서광다원 : 10:00 AM ~ 7:00 PM
 오설록 티뮤지엄 : 8:30 AM ~ 7:00 PM
 오설록 티스톤 : 9:00 AM ~ 7:00 PM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 : 9:00 AM ~ 7:00 PM
 * 운영종료 30분전까지 입장마감

전시연계프로그램

Art Trek 정규 도슨트 투어

일시 : 매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장소 : 서광다원 입구

Art Making 작품제작 체험 프로그램

나도 아티스트!!

대상 : 전시관람객 누구나
 장소 : 오설록 티뮤지엄 1층

1. 필름지에 컬러링하여 완성한 그림을 BETWEEN WAVES Wall에 전시
 참여기간 : 1차 - 2014. 7. 7 ~ 7. 12
 2차 - 2014. 8. 4 ~ 8. 9
2. 종이컵에 드로잉하여 만든 그림을 오설록 티뮤지엄 로비 진열장에 전시
 참여기간 : 1차 - 2014. 7. 14 ~ 7. 31
 2차 - 2014. 8. 11 ~ 8. 31

Events

1. 블로그 포스팅 이벤트
 전시장 풍경을 블로그에 포스팅
 기간 : 2014. 7. 5 ~ 8. 31
2. 페이스북 공유 이벤트
 미술관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2014 Highlights의 작품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
 기간 : 2014. 7. 5 ~ 7. 31
3. 페이스북 체크인 이벤트
 BETWEEN WAVES 전시장을 방문하고
 페이스북 체크인과 함께 인증샷을 업로드
 기간 : 2014. 8. 1 ~ 8. 31
 참여방법 : 미술관 메일로 이름/블로그 URL 또는
 페이스북 아이디/등록일/연락처 전송
 미술관 메일 : museum@amorepacific.com
 미술관 홈페이지 : museum.amorepacific.com
 프로그램 문의 : 031 280 5587

- ① 서동주 (Season) 오설록 티뮤지엄 티스톤,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 등 각 장소의 이미지에 맞는 그래픽적 요소로 건물을 포장하였다. 자연과 추상적 디자인의 조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시각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감각과 공간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 ② 부지현 (Net-Behing) 집어들이듯 가을이 만들어내는 환상과 바다에 걸린 소름은 제주도 밤바다의 경성(心象)을 제공한다. 불이 꺼진 전등에 생명을 주며 새로운 풍경을 구현하는 자연으로, 불모지에서 녹차밭으로 변모한 서광다원의 장소적 특성을 재인식시킨다.
- ③ 정민승+정재원 (A night, 西廡) 불이 켜지는 안방의 서광다원 풍경을 재진화하여 이미지와 음악으로 재해석하였다. 영상에 기록된 밤하늘과 이를 테마로 작곡된

- ④ 이원우 (삼만에 관하여) 서광다원 인근에 세워진 18m의 기둥에는 'IN TERMS OF ROMANCE(삼만에 관하여)'라고 적힌 대형 깃발이 펼쳐진다. 깃발의 마원정 문장은 어항의 윗부분 공간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에서 가능한 원상(元象)과 남만을 깃발의 방식으로 구축하게 하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
- ⑤ 오승열 (오고고) 서광다원 풍경의 하나인 녹차나무 가지의 모습을 거대하게 조형화하였다. 녹차잎을 수확한 이후 남긴 가지의 모습은 새로운 어린 잎을 피워낼 자연의 잠재된 경관을 의미한다.

- ⑥ 이근세 (무위지함마(無爲至何馬)) 관철한 녹차밭의 풍경은 장자(莊子)가 무위자연(無爲自然)을 꿈꾸며 묘사했던 이상향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떠오르게 한다. 이에 착안하여 명연한 '무위지함마'는 붉은 도넛과 오양의 반지극과 함께 서광다원 신축미술관에 세워진 유우지극하게 소요할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을 재현한다.
- ⑦ 백정기 (단반체조기) 일시적으로 저장된 빛들은 제주의 현무암을 지나 석음이 가능한 일출한 물로 재조된다. 곡 필요한 때 내리는 고마운 단반체는 관념을 현실화하여 문명의 상징적 의미를 마직(麻織)의 경험으로 풀어낸다. 서광다원의 비옥(肥沃)을 기원하는 역할을 한다.
- ⑧ 김태곤 (Sign 6: 각성의 시간) 제주도의 지형을 반영한 스타일인리스 조각을 조합하여 잎맥과 잎사귀를 은유하였다.

- ⑨ 김별호 (15개의 풍경) 세분화된 조각들은 전체적으로 섬을 조감하는 형태이며, 첫인상의 시각적 유사성은 녹차나무가 텃밭, 소멸하는 생명의 근원지로서의 장소성을 의미한다.
- ⑩ 김현중 (AIR CUP) 수평은 녹차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수평의 곡곡을 원기리에서 축적하여 긴 모양의 활동 조형물로 구현한 후의 새 사이에 새로운 설치하였다. 조형화된 축적 데이터는 명이 간직한 역사를 반영하며, 풍경에 대해 입체적, 개념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 ⑪ 김현중 (AIR CUP) 강천중의 작품은 굽어지는 녹차밭의 자연지세를 입체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철 파이프로 구성된 전방대의 외벽은 통풍이 가능하고 풍경을 투과시켜 서광다원의 바람과 자연을 담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 ⑫ 권숙서무소 에스오에이 (25계단) 계단에 사용된 것을 자원의 소재는 서광다원의 자연과 관람객을 함께 투영시키며, 풍경을 확장하여 자연과 인공물의 교감을 시도한다. 나무와 가까운 지점에서 후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계단을 배열하여 환경적 특성을 건축적으로 풀어내는 에스오에이 의 접근 방식이 잘 나타난다.
- ⑬ 이은선 (음의 언덕) 녹차밭 사이에 설치된 붉은색의 긴 벤드는 고개를 따라 각기 다른 높이로 설치되었다. 리드미컬한 경관을 형성하고 바람에 반응하는 인기의 현을 은유하며, 강소를 음률적으로 재해석한다.
- ⑭ 노재은 (포레임워크 - 동백) 동백수에 설치된 시가의 아르킬은 영화사 (映畵史)에 존재해 온 스크린 비움을 적용한

- ⑮ 김인배 (시계) 서광다원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해체하고, 장소가 가진 고유한 시간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제주의 바람에 의해 회전하는 원판, 태양광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우연한 효과는 직관적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낸다.